

수백만원대 고가 거위털 패딩점퍼...알고보니 오리털



컨슈머리서치 국내외 25개 제품 충전재 조사 100% 거위털 사용은 4곳뿐...대부분 혼합

한 벌 가격이 백만원을 넘는 고가 수입 패딩점퍼 대부분에 보온용 충전재로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운 점퍼의 핵심 소재인 충전재의 원산지 표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입업체가 충전재의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8개 프리미엄 다운점퍼 수입브랜드와 아웃도어 브랜드 9개 등 총 17개 브랜드 25개 제품의 충전재를 조사한 결과 고가 수입 제품 16개 가운데 거위털을 사용한 제품은 4개 뿐이었다고 20일 밝혔다.

제품 가격이 300만 원에 육박하는 몽

클레르와 219만원~354만 원의 에르노 브랜드 제품의 충전재에만 거위털이 쓰이고 있었다.

반면 캐나다구스, 파라점퍼스, CM-FR, 노비스, 아이그너, 무스너클 등 6개 브랜드 12개 제품에는 오리털 충전재가 사용됐다.

일반적으로 거위털은 솜털 크기가 커서 보온성이 뛰어나고 중량에 비해 볼륨감이 있다. 가격도 턱다운보다 비싸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리털을 쓰는 제품도 수입 명품이라는 미명 아래 최저 108만원에서 최고 271만원에 이르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반면 조사대상 9개 아웃도어 브랜드는 거위털을 충전재로 사용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 가격은 43만~79만 원으로 고가 수입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오히려 충전재로는 비싼 거위털을 사용한 것이다.

보온성을 결정하는 충전재 혼합 비율 면에서도 아웃도어 제품이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우위에 있다.

통상 솜털 비율이 높을수록 보온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데, 프리미엄 브랜드 가운데 CMFR과 노비스만 100% 솜털을 채웠고 나머지 브랜드 제품은 솜털과 깃털을 섞어서 썼다.

캐나다구스, 아이그너, 무스너클 브랜드는 오리털을 사용하는데 깃털비율이 20%에 달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는 노스페이스와 밀레만 깃털비율이 20%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솜털을 90% 사용했다.

그 뿐만 아니라 충전재의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CMFR과 노비스 2개 브랜드만 별도 태그로 원산지를

표시했고, 일부 브랜드는 수입 업체조차 충전재 원산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파라점퍼는 본사가 이탈리아에 있지만 제품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오리털도 중국산을 쓴다고 설명했다. 독일 브랜드인 아이그너는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충전재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못했다.

아웃도어 브랜드의 경우 노스페이스와 블랙야크, 밀레, 컬럼비아는 충전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반면, 라푸마와 K2, 디스커버리, 네파, 코오롱은 별도의 태그로 원산지를 밝혔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수입 고가 다운점퍼는 가격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만큼 패딩의 기능적인 면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충전재 원료와 혼합비율, 원산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허니버터칩' 인기폭발...중고사이트서 3배 가격 등장도

수요 급증에 공급 물량 부족
출시 3개월 만에 판매 1위

해태제과가 지난 8월 출시한 감자칩 '허니버터칩'이 폭발적인 인기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중고 사이트에 비싼 가격에 매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19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을 보면 허니버터칩을 판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다. 봉지당 판매 가격은 2000원부터 편의점 판매가(1500원)의 3배가 넘는 5000원대에 이르렀다.

"누가 과자 한 봉지를 이 가격에 살까" 하는 의구심이 들 법도 하지만 실제로 구매하겠다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쪽지를 달라고 요청한 댓글도 달렸다.

허니버터칩은 최근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폭증해 수요보다 공급 물량이 크게 부족해졌다. 실제로 한 편의점에서는 수급이 불안정해 일시적으로 제품 발주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허니버터칩은 이달 들어 편



의점(GS25·CU·세븐일레븐) 전체 스낵류 매출 순위에서 포카칩, 새우깡, PB(자채상표) 팝콘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해태는 허니버터칩을 생산하는 원주 문막공장을 2교대에서 3교대 근무로 전환하고, 주말에도 '풀 가동' 중이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태 측은 허니버터칩 수요를 맞추려 공장을 무리하게 돌리다가 불이 나 제품 생산이 중단됐다는 사실무근의 소문이 돌기도 했다.

허니버터칩은 해태제과와 모기업 코

라운제과를 통틀어 2004년 출시된 마이쥬 이후 10년 만에 나온 히트상품이다. 출시 3개월 만에 매출 50억원을 돌파했다.

잔맛 위주인 감자칩에 달콤한 맛을 결정한 점,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발하게 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문을 탄 점 등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해태 관계자는 "회사 측도 허니버터칩이 이 정도로 인기가 많을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쇄도하는 주문량을 맞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 순해진 참이슬

25일부터 17.8도 판매



국민소주로 자리잡은 '참이슬'이 25일부터 알코올 도수 17.8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1998년 23도 참이슬을 출시한 하이트진로는 소주는 25도라는 상식을 깨고 '독한 술' 소주의 이미지를 깨끗하고 부드럽게 바꿔 순한 소주 시대를 열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참이슬'은 다양한 주질 테스트와 최적의 소주 블렌딩 기술로 소비자의 저도와 요구에 맞는 최적의 알코올 도수가 적용됐다. 기존의 특허받은 천연 대나무활성숯 정제공법보다 대나무숯을 증량해 업그레이드된 자연주의 정제공법을 사용해 목넘김은 더 깔끔하게 향은 부담없이 개선했으며 숙취가 없는 깨끗한 참이슬로 품질을 향상시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방카슈랑스' 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은행과 보험의 합성어>

예·적금 오해 많아 불만 촉발
보험이지만 자세한 설명 미흡

은행이 방카슈랑스를 팔면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면서 사법비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접수된 방카슈랑스 관련 소비자상담 246건 가운데 '불완전판매'에 따른 불만'이 160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서, 지역조합,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을 말한다. 국내에는 지난 2003년 9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고객에게 제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의 유형은 ▲보험상품의 설명 미흡 ▲방카슈랑스를 예·적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 ▲사법비 및 판매수수료 미고지 등이었다.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은 '은행의 권유'를 가입 이유로 제시했다. 주요 가입 이유는 ▲은행 창구에서의 권유 41.8% ▲은행 직원의 전화권유 14.2% 등이었다. 반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방카슈랑스에 가입한 경우는 37%에 불과했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권유내용은 ▲"예·적금 또는 펀드보다 유리하다" 55.7%(156명)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 10.4%(29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가입 당시 방카슈랑스가 보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경우는 49.3%(138명)에 그쳤다. "제품 설명을 들었으나 보험과 예·적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예·적금으로 알았다"는 경우도 50.7%(142명)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은행 직원이 방카슈랑스를 권유할 때 보험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요정보 중 사법비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표시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연말연시 모임·피로연·돌 회갑 등

등대바다

(주) 해진수산 (주) 창진수산 전국 유통 직영점!

등대바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38-2 (062)682-9688 정일영 010-2604-7223

해진수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061)552-7223

창진수산 전남 완도군 고금면 내동리 (061)554-4631

대량 저가 판매 전복 연말 선물 Set

마재우체국 건너편 (062)682-9688 ※ 300석 완비, 주차장 완비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안구 하남동 805(축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